

사회

2011 대입 수능성적 통지



'두근두근' 내 성적은...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능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가운데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3학년 한 교실에서 성적표를 확인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제각각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정시 예상합격선

Table with 3 columns: 인문, 자연, and other categories. Lists various departments and their estimated admission scores.

조선대 정시 예상합격선

Table with 3 columns: 인문, 자연, and other categories. Lists various departments and their estimated admission scores.

수도권 주요대학 정시 예상합격선

Table with 3 columns: 대학, 학과·학부, and 합격선. Lists major universities in the Seoul area and their estimated admission scores.



초등생 스쿨버스 치여 숨겨

여수경찰, 운전기사 조사

여수경찰은 8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스쿨버스 운전기사 김모(5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10분경 여수시 주상동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이 학교 1학년 정모(7)양을 45인승 스쿨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양은 사고 직후 여수의 한 병원을 거쳐 순천의 모 병원으로 옮겨져던 중 숨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정양이 차에 치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박성태기자 mihang@

'350만원 슬쩍' 문자 메시지에 '덜미'

유휴주점에 위장취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업주의 핸드폰을 사용해 '흔적'을 남기는 바람에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미모(20·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지난 달 28일 새벽 2시에 광주시 서구 칠동동 2호(48)씨의 유휴주점에서 카운터 간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250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2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미씨는 일반 전단지 에 비해 20~30% 가량 웃돈을 받고 성매매 전단지를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적발된 성매매 광고전단에 적힌 속칭 '대포폰' 18대를 사용금지 조치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성적표 배부 '희·비' 엇갈린 교실

대부분 학생들 "가채점 결과와 비슷" 안도

'EBS 연계' 정부 믿었던 학생들 "억울하다"

8일 오전 9시45분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3학년 1반의 교실문이 열리고 담임교사가 두툽한 성적표 봉지를 든 채 들어서자 교실은 순간 냉기가 흘렀다.

8일 광주 고교진학담당 교사들에 따르면 올해 수능 채점 결과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이 언어 140점, 수리 153점, 수리 나형 147점, 외국어 142점으로 작년 수능보다는 각각 6점, 11점, 5점, 2점 높아졌다.

2011학년도 대입 수능능력시험 성

적표가 배부된 8일 광주 지역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큰 동요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다.

학생들은 수능 결과에 대해 할 말 이 많았지만 단언 화제는 'EBS 연계' 이야기였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EBS 교재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과목마다 연계성과 편차가 심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표현하는 학생도 있었다.

대광여고 3학년 이영주(18)양은 "가채점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근현대의 경우 난이도가 쉽게 나와 단 1문제를 틀렸지만 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약간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신이정(18)양도 "EBS 연계라는

말에 너무 의식한 건지 문제들이 예상외로 뒤떨어져 시험볼 때 문제에 대한 감을 쉽게 잡을 수 없었다"며 "수리와 사회탐구는 특히 연계를 느낄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상일여고 김형진 진학부장은 "올해 하향 지원 추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하위권 학과의 합격선이 상위권 인기가학과 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예상된다"며 "지나친 하향 지원은 오히려 '독·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가, 나, 다 전형 가운데 최소 2곳은 소신 지원하고, 1곳은 다소 높여 지원하고 입을 모았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농협 RPC長 자살

감사 받은 후 음독... '열심히 일했는데' 유서

자체 감사 결과를 놓고 고민하던 농협 통합미곡처리장(RPC) 장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15분경 광주시 광산구 동림동 '광주시농협 쌀조항 공동사업법인' 농협 통합미곡처리장 1층 기계 제어실에서 장장 염모(49)씨가 극약을 마시고 신음 증인 것을 직원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염씨는 이날 광주 S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시간 만인 이날 밤 10시께 숨졌다. 이 직원은 경찰에서 "기계제어실에 가봤더니, 장장이 극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염씨는 지난 2008년 1월 1일~지난해 12월 31일까지 2년간 농협 통합미곡처리장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한 뒤 올해 8월부터 장장으로 일해

왔다. 염씨는 "농협 통합미곡처리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A4용지 절반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는 기계제어실 한 책상에 발견됐다.

염씨는 최근 농협 통합미곡처리장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받고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의 자신이 대표 이사로 재직할 당시 미곡처리장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염씨가 최근 많이 힘들어했다는 지인 등의 진술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중흥기자 golee@kwangju.co.kr

중상위권 몰려 진학지도 '골머리'

중위권 눈치보기·막판 소나기 지원 혼란 클 듯

전문가들 "지나친 하향지원 오히려 독 될수도"

2011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채점 결과 중상위권 성적대에 수험생이 몰려 일선 고교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재수생 강세가 뚜렷한 데다 내년 수능 수리영역 시험범위 확대에 의한 재수 기회현상 심화, 경쟁률 상승 등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은 탓이다.

8일 광주 고교진학담당 교사들에 따르면 올해 수능 채점 결과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이 언어 140점, 수리 153점, 수리 나형 147점, 외국어 142점으로 작년 수능보다는 각각 6점, 11점, 5점, 2점 높아졌다.

가채점과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져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구분은 뚜렷해졌지만 중상위권 점수대에 수험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위권을 중심으로 눈치 보기와 막판 점수, 하향지원 심화 등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재수생 강세, 대입 경쟁률 상승도 대입 성패의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송원고 박연중 진학부장은 "채점결과 중상위권 성적대에 수험생

이 몰려 서울 중상위권 대학부터 서울 하위권, 지방 주요 대학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수능 응시자는 66만8991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775명 늘어 경쟁률이 높아졌고, 재수생도 15만8098명으로 전년보다 많다.

수능채점 결과 언어 영역의 경우 중상위권(3~4등급)에 18만여명, 수리 가형은 4만2000명, 수리 나형 13만6000여명에 달하는 등 수험생들이 몰렸다.

송원고 박연중 진학부장은 "채점결과 중상위권 성적대에 수험생

성매매 광고전단지 인쇄업자 검거

광주에 5년간 7000만장 제작·공급

웃돈을 받고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만들어준 40대 인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제작해 판매한 강모(40)씨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범행한 성매매 광고전단지 7000만장을 제작해 성매매알선 업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지난 5년간 제작한 성매매 광고전단지는 1t 트럭 100대 분량에 달한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일반 전단에 비해 20~30% 가량 웃돈을 받고 성매매 전단지를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적발된 성매매 광고전단에 적힌 속칭 '대포폰' 18대를 사용금지 조치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6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액,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Table with 6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액,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인건에 해당하지 않음... 1. 2010. 12. 9. 2. 2010. 12. 9. 3. 2010. 12. 9. 4. 2010. 12. 9.